

#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 실현 노력

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가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부를 슬로건을 내걸고 7월 1일 출범했다.

전반기 도의회를 이끌 김희수 의장(전주6·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현장의 힘을 믿는 다'며 '달란 앞서는 약속 대신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를 건강하게 견제하고 협력하며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새봄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Q. 상생을 통한 '협치', 청렴을 통한 '신뢰'라는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 우선, 협치를 위해 의회 내부 소통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 간 협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청·도 교육청과도 유기적인 정책 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의무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등급에 그쳤던 도의회 청렴도를 2등급으로 향상시키는 등 청렴 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로봇과 AI, 수소라는 미래 핵심 먹거리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모델의 실증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전북 경제의 지도를 바꿀 이 위대한 결단이 반드시 결실을 보도록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Q.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려면 안정적인 환경과 속도감 있는 행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과거 새만금 개발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으며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이었다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차질 없이 투자를 실행하도록 '정치 논리'보다는 오직 '기업과 경제 논리'로만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제·개정 추진하는 동시에 용수·전력·태양광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데 필수적인 기반 시설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전북도청과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Q.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전북에 대규모 공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현대차의 투자가 16조 원의 생산 유발과 7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수치로 증명하려면 지역과의 상생이 핵심입니다.

먼저, 도내 자동차 부품 및 제조 기업들이 현대차의 로봇·수소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R&D(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지역 인재 맞춤형 일자리 매칭입니다. 도내 대학, 교육청과 연계해 AI, 로봇, 수소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펼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유능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대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끝으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지성감천'의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생의 중심에 서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정치는 도민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민을 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변화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만호 기자

Q.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 신뢰의 무게를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북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다수의 초선 의원이 합류하여 새로운 의회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절대다수 정당 체제라는 구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이번 13대 의회는 과반이 넘는 유능한 초선 의원님들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열정, 도전의 에너지가 의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의 가능성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과 동행'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의 뜨겁고 빛나는 열정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다수당이 책임 있게 의회를 이끌어가며, 소수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더 촘촘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소수야당 소속 의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의장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고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열린 의회, 균형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수의 힘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더 큰 책임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실 계획이신가요?

- 의장이라는 자리는 의원님들이 마음껏 의

정 역량을 펼칠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현신하는 가장 단단한 디딤돌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구성의 의회일수록 속도보다 방향, 다수보다 공간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여야 선후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분 없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Q.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부를 슬로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 도의회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도민 누구든 편안하게 찾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문턱은 낮추고 소통은 넓혀 도민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도민이 체감하는 많은 변화가 겹겹이 쌓여 '살기 좋은 전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Q. 공약에 협치와 신뢰받는 의회를 강조하셨

습니다.

- 지방의회는 결국 지역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의견과 가치가 있더라도 그 출발점과 목표는 언제나 도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과 도 교육청과의 건강한 견제를 기반으로 올바른 지적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되, 도민이 체감하는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기반 조성 등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정치적인 이해나 권력 구도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함께 풀어가야 할 속제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등 의견이 넓은 정책 의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협치는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신뢰는 청렴과 원칙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적용하여 도의회 스스로 권한 남용을 경계하며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겠습니다. 공정성과 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  
전북의 미래 함께 설계  
도민 체감 상생정치 구현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지방의회 전문성 높일 것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결실 보도록 의회 역량 집중

Q.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의회의 역량과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성은 무엇일까요?

- 강한 지방의회는 더 큰 권한이 아니라 깊이 있는 전문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만큼 의회 자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 체제로 확충하여 정책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고 압법, 예산, 정책 분석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또 조례 시행 추진관리단을 신설하여 제정된 조례가 예산 미편성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이행 상황 및 예산 반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예산 편성권 독립을 추진하겠습니다.

Q.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 먼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결정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투자 결정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전방 제조 중심에서 미래 첨단 신산업으로 통째로 바꾸는 '역사적 변곡점'이자 대전환의 신호탄입니다.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